

5·18 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 설계안 나온다

설계 용역 공모에 설계사무소 3곳 참여...9월 제안서 제출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 신설...내년 착공 2022년 완공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사업이 설계 공모, 전담조직 신설 등으로 본격화했다. 26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설계 용역 공모를 위한 사업·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공모에 참여한 설계 사무소 3곳은 설계

기본 방향, 범위, 내용 등 설명을 듣고 다음달 16~17일 제안서를 제출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10월 2일 제안서를 심사해 설계 사무소를 선정하게 된다. 과업은 옛 도청 본관·별관·회의실, 전남경찰청 본관·민원실·사무관 등 6개 동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설계안은 ▲5·18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

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계승하는 공간 조성 방안 ▲공간 설계·시공·운영 과정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방안 ▲도청 별관 개축 시 문화전당 진입로 복원 방안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공사는 내년 10월 시작해 2022년 7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최종 심사를 통과한 설계안은 5·18단체 등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복수의 설계사무소가 건축 설계 용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모를 다시 한다. 자료 부족으로 1980년

5월 당시 상황을 구현할 수 없는 공간은 자료 확보, 검증 뒤 구성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신설의 결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직속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 맡는다. 추진단은 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 전시콘텐츠팀 등 2과 1팀으로 구성되며 모두 24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 사업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옛 전남도청 원형이 훼손돼 복원이 필요하다는 지역민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 농업분야 전문가들과 2019국제농업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설계 용역 감독 부적정

광주시 감사위 지적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설계용역 업무를 부적절하게 감독하거나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26일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본부는 9월 착공하는 2호선 1단계 건설 사업과 관련, 2017년 6개 업체와 13억6000만원의 실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업체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용역을 수행하고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면서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승인 절차 없이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또한 2호선 1단계 차량기지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4375㎡가 감소돼 재해영향평가 적용요율이 조정됐는데도, 용역비 재산정을 통한 감액조치(143만원)를 취하지 않았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예정공정표와 인력투입 계획서가 어긋나게 기록돼 있는 감독업무 소홀이 드러났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또한 청사이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방송통신공사 업무 과정에서 전문성과 정밀시공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설계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일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총력

김영록지사 추진상황 점검

전남도가 오는 10월 17일부터 열리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쏟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이날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농업 유관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5개 테마에 맞춰 13개 전시·판매·체험관을 구성하고 3개의 특별 전시를 마련,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주제관인 여성농업마당의 경우 여성과 청년농업인의 성공사례를 통해 농업의 미

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국내외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교류의 장'으로 꾸며진다. 전시체험마당은 최신 농업 트렌드인 치유농업과 반려동물, 아열대 작물들을 소개하고 상생교류마당은 도시민과 농업이 소통하면서 관람객이 농업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연합의 장'을 제공한다. 혁신기술마당은 농업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농업 기술을 체험 및 시연하는 '소통의 장'으로 조성된다. 전시관별로 전문해설가를 두고 경관에 신경을 쓰는 등 불거리도 강화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든다는 전략이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대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청년 83명 전남 농촌에서 희망가 부른다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 5일간 순천·담양 등서 현장체험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 83명이 오는 30일까지 5일간 도내 각 시·군 농촌마을에 머물며 귀농 가능성을 타진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미래농업지원센터는 전국 40세 미만 청년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6개월간 실습 위주의 고품질 현장교육인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교육 참가자는 12월 27일까지 운영되는 청년농부사관학교 3기 교육생이다. 두 달간의 기초소양교육을 마치고 현장교육을 받기 위해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특별팀으로 참가한다. 이들은 5일 동안 순천 개령이고들배기마을, 담양 도래수마을, 화순 집업분화권역, 함평 해당화마을 등 4개 마을에 나뉘어 머물게 된다. 해당 지역 선진 재배농가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장 견학, 마을 리더와의 대화, 농업기술센터 방문 등 다양한 농촌 현장체험을 할 예정이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하반기 사업은 25개 마을·농가에서 11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전남 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누리집(<http://live.jeon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남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시민단체 폄하 발언 사과하라”

참여자치 21 성명 “위험한 반민주적 리더십”

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시민단체 폄하' 발언에 발끈하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21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용섭 시장의 최근 발언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귀를 강제로 닫게하고, 손발을 묶어 입을 틀어막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에 기반한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규정했다. 참여자치 21은 그러면서 “이 시장의 이러한 행태는 민·관 협치시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전근대적이고 오만한 권력자 위치에서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아주 위험한 반민주적 리더십의 전조 현상”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5일 광주형일

자리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박광태 전 광주시장 선임 등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매사를 비난하고 폄하만 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까지 수용하다 보면, 광주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광주는 발전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참여자치 21은 “이 시장이 밝힌 '일부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지난 20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 이후, 관련 입장문을 밝힌 단체는 우리 참여자치21과 정의당 광주시장 뿐이었다”며, 이 시장이 거론한 시민단체는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 반대여론은 이 시장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며 “이 시장은 '매사 비난과 폄하'하는 단체'로, 시민단체를 싸잡아 비방한 행위를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남도학속 원장에 정상용 전 의원

지난 3월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에서 낙마했던 정상용(70) 전 국회의원이 남도학속 원장에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시장에서 이용섭 시장에 직접 임명장을 받고 이날부터 남도학속 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서울에 소재한 남도학속은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다. 광주시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입장이지만, 원장에게는 연

4500만원 수준의 활동비가 주어진다. 3년 임기의 남도학속 원장은 남도장학회 이사장인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번갈아 가며 추천·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번 인사는 광주시장의 순서로 이용섭 시장이 추천해 임명하게 됐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정 선임 원장은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한민국의 전기가 뚜뚜뚜뚜 능능능능 주주주주 입니다

한전KDN의 ICT기술력으로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해집니다

전력과 ICT의 만남으로 에너지ICT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에너지 세상의 리더 한전KDN
고품질의 전기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에서 송변전, 배전, 판매까지 전력계통은 물론,
청의와 융합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이끌어갑니다.